

2019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약의 정경 안에서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메시지 2

노예-구주의 복음 봉사의 내용과 방식

성경: 막 1:14-45, 2:1-3:6

- I. 노예-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섬기셨고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시며 장래에도 우리를 섬기실 것이다 — 막 10:45, 눅 22:26-27, 12:37.
- A. 복음의 이야기와 구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그 후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가서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마 26:13, 요일 4:19, 요 13:12-17, 롬 1:1, 갈 6:17, 요일 3:16.
- B. 생명 주시는 영이신 노예-구주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 — 요 10:10 하, 고전 15:45 하, 요일 5:16 상, 고후 3:6.
- II. 우리는 노예-구주의 놀랍고 탁월한 복음 봉사의 내용의 실재를 보아야 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막 1:14-45.
- A. 노예-구주께서 복음 봉사에서 처음으로 하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었다 — 막 1:14-20.
1.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모든 과정들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구속의 일을 포함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의 내용이다 — 막 1:1.
 2.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혹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이다 — 막 1:1-8, 말 3:1-3, 비교 4:1-2.
 3. 노예-구주의 선포는 속박을 받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분의 가르침(막 1:21-22)은 배우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신성한 빛으로 비추는 것이었다.
 4. 그분이 선포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함축하며,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선포하시는 것을 함축한다 — 마 4:23, 막 1:38-39, 3:14, 6:12, 14:9, 16:15, 20.
- B. 노예-구주께서 복음 봉사에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었다 — 막 1:21-22.
1. 진리는 성경의 사실들에 신성한 빛이 비치어 그러한 사실들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상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방영되는 것이다. 진리는 빛의 비춤이고 빛은 생명의 빛이며 생명은 영이다. 따라서 진리와 생명과 그 영은 (모두 그리스도 자신이며) 분리할 수 없다 — 요 8:12, 32, 36, 1:4, 14:6 상, 고후 3:6, 8, 17, 비교 롬 8:2.

2. 진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막 2:13, 4:1, 6:2, 6, 30, 34, 10:1, 11:17, 12:35, 14:49)은 사람들을 사탄적인 어둠에서 신성한 빛 안으로 이끌기 위한(행 26:18) 것이었다. 세상의 빛(요 8:12, 9:5)이신 노예-구주는 큰 빛으로서 어둠의 땅인 갈릴리로 오셔서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마 4:12-16).
 3. 그분의 가르침은 빛의 말씀을 해방하여 죽음에 속한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그들이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요 1:4.
- C. 노예-구주께서 복음 봉사에서 세 번째로 하신 것은 귀신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들을 쫓아 내신 것이었다 — 막 1:23-28.
1. 사람들이 귀신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사탄이 강탈한 것을 상징한다.
 2. 주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고(요일 3:8),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막 1:34, 39, 3:15, 6:7, 13, 16:17)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눅 13:16), 곧 사탄의 어둠의 권세(행 26:18, 골 1:13)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왕국(막 1:15)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 D. 노예-구주께서 복음 봉사에서 네 번째로 하신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었다 — 막 1:29-39.
1. 병은 죄에서 비롯되며,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생기게 된 비정상적인 상태의 상징이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아픈 상태를 고치시어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 막 1:34, 3:10, 6:5, 13, 56.
 2.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의사처럼 사람들이 병든 상태가 고쳐지도록 하늘에 속한 처방을 주고 신성한 약을 주어야 한다 — 마 9:11-13, 눅 10:33-37, 비교, 잠 4:20-23, 출 30:25.
- E. 노예-구주께서 복음 봉사에서 다섯 번째로 하신 것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었다 — 막 1:40-45.
1. 나병은 반역죄를 상징하며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 주제넘은 죄, 결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심각한 죄이다 — 요일 3:4, 비교 사 14:12-15, 레 13:2, 14:9.
 2. 미리암(민 12:1-10)과 게하시(왕하 5:20-27)와 웃시야(대하 26:16-21)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병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대표 권위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반역의 결과이다.
 3. 레위기 14 장 33 절부터 57 절에 있는 집은 우리의 참된 집인 교회를 예표하며 집에 발생한 나병은 교회 안에 있는 죄들과 악한 것들을 상징한다. 제사장은 주님이나 그분의 대표 권위를 상징하며 집을 검사하는 것은 유죄판결이 아니라 은혜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1:11.
 - a. 칠일 후에 감염된 돌들을 빼내는 것(레 14:40)은 온전한 기간 동안 관찰한 후에 교회의 문제가 여전히 퍼지고 있다면 그 문제에 연루된 믿는 이 한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교통으로부터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과 외부인들처럼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질병의 확산을 멈추고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 롬 16:17, 딤후 3:10.
 - b. 빼낸 돌들이 있던 자리에 다른 돌들을 채워 넣는 것(레 14:42 상)은 다른 믿는 이들(벧전 2:5)을 사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상징한다.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바르는 것(레 14:42 하)은 교회 생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일들에 대한 새로운 체험들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c. 나병이 다시 발생한 집을 허는 것(레 14:45)은 교회의 상황이 치료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비교 레 2:5).

- d. 주님의 은혜로운 일들에 대한 새로운 체험들을 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진 후에 죄가 퍼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깨끗하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원히 효능 있는 피와 그분의 영원하고 살아있는 영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며 그럴 때 교회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될 수 있다 — 레 14:48-53, 히 9:14, 10:22, 요일 1:9, 딤후 3:5, 요 14:2, 23.

III.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에 기록된 다섯 가지 사례는 노예-구주께서 그분의 복음 봉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취하신 긍휼이 넘치고 살아 있는 다섯 가지 방식들을 제시한다.

- A. 주님은 신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를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하시고(행 10:38) 하나님께로 회복하셨다.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그들의 종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막 2:1-12.
 - 1. 주 예수님은 하나님-구주이시며 또한 노예-구주이셨고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소유하셨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계셨다 — 눅 5:21, 24.
 - 2.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시 130:4),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눅 7:36-50). 주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시며(눅 7:50),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하신다(요 8:11).
- B. 병들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로서 그분은 자신의 동족에게 불신실하고 불충실한 세리들 및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바리새인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 하나 긍휼이 없는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죄 있다고 판단했다 — 막 2:13-17.
 - 1.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강건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과 의사이신 그리스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마 9:12-13.
 - 2. 주님은 의사로서 그분의 '환자들'이 그분을 잔치로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끈다. 구원의 기쁨, 곧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명절이다 — 고전 5:7-8, 시 51:2, 12.
- C.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신랑이신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금식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셨다. 따라서 주님은 (새 종교의) 요한의 제자들과 (옛 종교의) 바리새인들의 실행을 무효화하심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종교의 실행들로부터 구출받아 그들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들의 의이신 주님을 외투로, 그들의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그들의 내적인 포도주로 갖고 있었다 — 막 2:18-22.
 - 1. 금식의 참된 의미는 주 예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주님 이외의 어떤 것도 맛보지 않는 것이다 — 마 6:16-18, 사 58:3, 요 6:57, 비교 민 11:4-7.
 - 2.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의해 세 부분으로 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유기적으로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얻으신다 — 롬 5:10, 비교 말 4:2.
 - a. 주님은 우리의 범법적인 구속을 위해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바르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되시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생배, 곧 우리의 새 옷이시다 — 눅 15:22, 고전 1:30, 마 9:16.
 - b. 주님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그분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고 기운을 내게 하시는 새 생명, 곧 새 포도주이시다 — 샅 9:13, 마 9:17, 골 1:12.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막 2:19)이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신랑 들러리'이다. 새 옷과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분의 단체적인 '신랑 들러리', 곧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 D.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따라서 외적으로는 그들이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만 사실상 그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임재의 떡으로 배고픔을 해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종교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막 2:23-28.
1.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의 일을 멈추며 우리의 영양 공급을 위한 임재의 떡이신 그분을 먹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 출 25:30.
 2.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나서 안식하셨고 사람은 먼저 안식하고 나서 일한다 — 창 2:2-3.
 3.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되어 그분과 하나되는 것의 표징이다. 그것은 또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누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다 — 출 31:12-17.
- E. 안식일에 주님은 한 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다.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양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관심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 막 3:1-6.
1.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사례이다. 한 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우리는 완전히 해방 받아야 한다.
 2. 노예-구주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시며 종교적인 의식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방되었을 수 있지만 우리 존재 속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노예-구주에 의해 해방되어야 한다 — 요 8:32, 36, 롬 6:12-23, 8:2.

IV. 위에 나온 노예-구주의 복음 봉사의 다섯 가지 방식은 다섯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용서(막 2:1-12), 누림(2:13-17), 기쁨(2:18-22), 만족(2:23-28), 자유(3:1-6)이다. 우리는 그분을 접촉함으로써 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5:24-34).

- A. 우리가 직접 주님을 접촉하여 그분을 직접 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전달되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 사람을 돕는 참된 길은 그들이 주님을 직접 접촉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 B.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매 순간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매일의 구원과 매순간의 공급이 되실 수 있다 — 요 4:24.